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Determinants of Poverty Among the Working Poor

李 台 眞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가구[1]의 가구특성과 가구주특성을 근로비빈곤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가구의 가구주특성, 가구여건, 소득특성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며,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2002년 자활실태조사의 1차 조사 표본 9,244가구에 소득과 근로능력의 기준을

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근로빈곤가구는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로서, 2002년 자활실태조사자료의 1차 조사 대상 가구소득의 중위 6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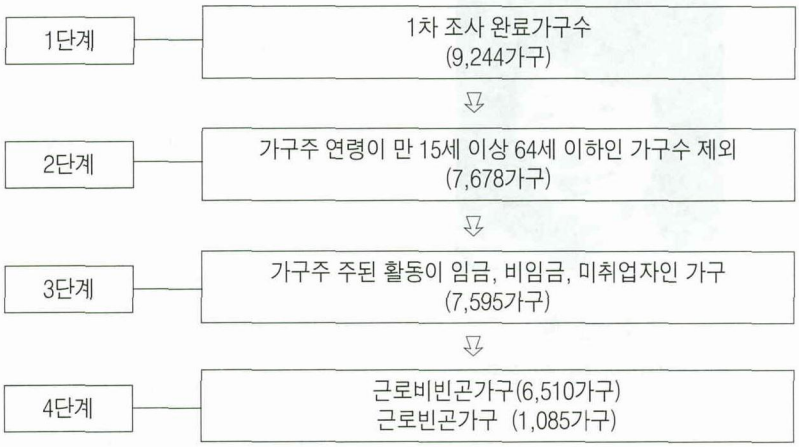
적용하여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를 추출하였으며, 분석자료 추출절차와 분석사례수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근로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만 15세 미만인 가구와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고, 둘째, 건강상태(근로능력과 희망)를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주된 활동에서 학업 및 진학준비를 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나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추출하였으며, 셋째, 가구의 빈곤여부를 위해 빈곤선[2]으로 근로빈곤가구(1,085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6,510가구)로 분류하였다.

2) 변수의 측정과 자료분석방법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를 빈곤선으로 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빈곤(1), 비빈곤(0)의 이항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한다.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여부와 관련하여 관심을 두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 혼인상태,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가구주의 주된 활동을 가구주특성 독립변수로

그림 1. 분석자료의 추출절차와 분석사례수



2) 빈곤여부를 위한 빈곤선은 2002년 자활실태조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를 이용한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는 42만원 이하, 2인가구는 72만원 이하, 3인가구는 108만원 이하, 4인가구는 126만원 이하, 5인가구는 146만원 이하, 6인가구 이상은 168만원 이하이다.

하고, 가구유형, 가구원수, 주거유형, 거주지역을 가구특성 독립변수로 하며, 가구주 소득, 가구원 소득[3], 가구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급여, 자산, 부채유무를 소득특성 독립변수로 한다.

분석방법은 먼저 기술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위에서 언급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징들을 파악하였고,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특성, 가구특성, 소득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검증, t-test, ANOVA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는 가구주특성, 가구특성, 소득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중 보다 중요한 예측력을 갖는 것은 어떤 요인들인가?

2.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1)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특성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된 활동,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사회보험가입여부를 근로비빈곤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빈곤가구는 남성가구주가 71.5%, 여성가구주가 28.5%로 구성되었으며, 근로비빈곤가구는 남성가구주가 87.7%, 여성가구주가 12.3%로 분포되었다. 가구주 성비로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가 근로비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여성가구주의 가구가 더 빈곤한 위치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와 근로빈곤가

가구주 성비로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가 근로비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여성가구주의 가구가 더 빈곤한 위치에 있음을 알수 있다.

3) 가구원의 소득은 가구주의 소득을 제외한 취업중인 가구원들의 소득임.

구의 가구주 모두 40대가 34.6%, 33.0%로 가장 많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30대가 27.6%로 나타난 반면,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0대가 21.8%로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보다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들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분석해 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고졸이 40.6%, 대졸이 29.1%, 중졸 12.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 학력은 고졸이 35.5%, 초졸 이하가 33.9%, 중졸 21.4% 순으로 나타나,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가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보다 상당히 낮은 교육수준으로 취약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유배우자가 8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미혼이 8.9%, 사별이 5.0% 순으로 분포되었다.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역시 유배우가 60.0%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나, 이혼·사별·별거인 경우가 33.4%로 근로비빈곤가구가 10.3%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가구형태에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해체가정의 빈곤은 가족해체가 근로활동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주된 활동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임금근로자가 61.6%, 비임금근로자가 31.8%, 미취업자가 6.7%로 분포되었다. 반면에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임금근로자가 40.9%, 비임금근로자가 19.6%, 미취업자가 39.5%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저임금의 임금근로자이거나 실업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만성질환유무 및 장애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중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9.5%에 불과하지만,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는 35.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장애유무에 있어서도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3.8%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나,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16.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문제 역시 빈곤과 관련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사회보험가입실태를 살펴본 결과,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78.8%,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95.5%로 근로비빈곤가구주의 사회보험가입률이

표 1.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특성 비교

(단위: %)

구 분		근로비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	계	
성별	남성	87.7(88.8)	71.5(11.2)	85.5(100.0)	χ^2 = 306480.7071***
	여성	12.3(73.8)	28.5(26.2)	14.5(100.0)	
연령	10대	0.1(70.4)	0.2(29.6)	0.1(100.0)	χ^2 = 262120.224***
	20대	6.9(92.4)	3.7(7.6)	6.4(100.0)	
	30대	27.6(89.5)	20.9(10.5)	26.7(100.0)	
	40대	34.6(87.2)	33.0(12.8)	34.4(100.0)	
	50대	22.5(87.0)	21.8(13.0)	22.4(100.0)	
	60대	8.4(72.7)	20.5(27.3)	10.0(100.0)	
교육수준	초등이하	13.2(71.7)	33.9(28.3)	15.9(100.0)	χ^2 = 758761.363***
	중졸	12.8(79.5)	21.4(20.5)	14.0(100.0)	
	고졸	40.6(88.1)	35.5(11.9)	39.9(100.0)	
	대졸	29.1(95.9)	8.1(4.1)	26.3(100.0)	
	대학원졸	4.3(96.2)	1.1(3.8)	3.9(100.0)	
혼인상태	미혼	8.9(89.6)	6.7(10.4)	8.6(100.0)	χ^2 = 663861.419***
	유배우	80.7(89.7)	60.0(10.3)	78.0(100.0)	
	이혼	3.7(68.3)	11.3(31.7)	4.8(100.0)	
	사별	5.0(65.2)	17.5(34.8)	6.7(100.0)	
	별거	1.6(69.3)	4.6(30.7)	2.0(100.0)	
가구주의 주된활동	임금근로자	61.6(90.7)	40.9(9.3)	58.8(100.0)	χ^2 = 1598890.0***
	비임금근로자	31.8(91.3)	19.6(8.7)	30.2(100.0)	
	미취업자 (실업과 비경제활동)	6.7(52.3)	39.5(47.7)	11.0(100.0)	
만성질환	없다	90.5(90.1)	64.4(9.9)	87.0(100.0)	χ^2 = 879174.849***
	있다	9.5(63.4)	35.6(36.6)	13.0(100.0)	
장애유무	없다	96.2(88.2)	83.6(11.8)	94.5(100.0)	χ^2 = 441933.933***
	있다	3.8(60.2)	16.4(39.8)	5.5(100.0)	
사회보험 가입여부	가입하지 않음	4.5(58.2)	21.2(41.8)	6.8(100.0)	χ^2 = 638931.399***
	가입했음	95.5(88.7)	78.8(11.3)	93.2(100.0)	

주: 1) ( )안은 열의 비율임.
2) ***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높음과 동시에 비교적 정규직에 종사함으로써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반면,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분포되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4대 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와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 및 교육수준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7.5세,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44세로,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약 12년으로 고졸정도이며,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약 9년으로 중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취업수준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빈곤가구의 가구특성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유형, 주거유형, 거주지역, 평균가구원수를 근로비빈곤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경우 일반(부부+자녀)가구 67.0%, 부부가구 11.5%, 단독가구 10.6% 순으로 분포되었고, 근로빈곤가구는 부부+자녀가구가 43.4%, 단독가구 14.8%, 부부가구 14.2% 순으로 나타나, 근로비빈곤가구보다 근로빈곤가구에서 단독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 중 자가인 경우가 55.3%, 전세 23.4%, 월세 16.4%,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는 무상거주가 4.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근로빈곤가구를 보면, 자가인 경우가 39.3%, 전세 19.2%, 월세 32.5%, 무상 9.1%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즉, 자가 비율은 근로비빈곤가구가 높은 반면에, 월세나 무상거주는 근로빈곤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는 대도시에 51.9%, 중소도시에 32.7%, 읍·면에 1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빈곤가구는 대도시에 44.5%, 중소도시에 29.3%, 읍·면에 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비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 모두 그들의 거

주지역의 분포순위는 같으나, 읍·면 지역의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읍·면 지역의 열악한 경제적 생활여건과 거주자들에 대한 제한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고려해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탈빈곤을 위하여 보편적인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의 도시화 등의 정책적 개입이 아닌, 빈곤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로빈곤가구의 탈빈곤을 위하여 보편적인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의 도시화 등의 정책적 개입이 아닌, 빈곤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비교하면, 근로비빈곤가구가 3.30명이고, 근로빈곤가구가 2.96명으로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수가 근로비빈곤가구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앞서 살펴 본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체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단위: %)

구 분		근로비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	계	
가구유형	일반가구(부부+자녀)	67.0(90.9)	67.0(90.9)	63.9(100.0)	χ^2 = 664297.233***
	부부가구	11.5(84.0)	14.2(16.0)	11.9(100.0)	
	모자가구	1.2(50.0)	7.9(50.0)	2.1(100.0)	
	부자가구	0.5(51.0)	3.1(49.0)	0.9(100.0)	
	단독가구	10.6(82.3)	14.8(17.7)	11.2(100.0)	
	기타	9.1(78.3)	16.4(21.7)	10.1(100.0)	
주거유형	자가	55.3(90.1)	39.3(9.9)	53.2(100.0)	χ^2 = 3331092.973***
	전세	23.4(88.8)	19.2(11.2)	22.8(100.0)	
	월세	16.4(76.6)	32.5(23.4)	18.5(100.0)	
	무상	4.9(77.8)	9.1(22.2)	5.4(100.0)	
거주지역	대도시 동부	51.9(88.3)	44.5(11.7)	50.9(100.0)	χ^2 = 123207.416***
	중소도시 동부	32.7(87.9)	29.3(12.1)	32.3(100.0)	
	읍·면부	15.4(79.2)	26.2(20.8)	16.8(100.0)	

주: 1) ( )안은 열의 비율임. 2) *** $p<.001$

3) 근로빈곤가구의 소득특성

여기에서는 소득 관련변인으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가구총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총소득, 가구주 소득과 가구원 소득, 소득유형별 가구소득 규모,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1)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소득

우선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총소득의 경우 근로비빈곤가구가 평균 246만원, 근로빈곤가구가 평균 60만원으로서 네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적이전을 포함하여 소득변화를 보면 근로빈곤가구가 6만원이 늘어난 약 6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을 결정짓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소득임과 동시에 공적이전을 수급해도 빈곤에서 탈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의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는 평균적으로 월 188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반면,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월 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들의 월평균 총소득을 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원의 경우 월 123만원,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의 경우 월 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비빈곤가구에서는 가구원소득이 가구총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근로빈곤가구에서는 가구원소득이 가구총소득의 약 40.9%(공적이전소득 포함)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빈곤가구는 주로 가구주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근로비빈곤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경제적인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가구총소득 중 근로소득만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의 경우 월 154만원,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월 39만원으로 역시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은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중요한 변수로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구 총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의 경우 월 79만원,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월 13만원으로 약 6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행상, 노점상 등 영세한 사업체를

표 3.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의 소득 및 자산 평균값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Mean	S.D.	계
가구원 유형별 소득	총소득 (공적이전 소득 제외)	근로비빈곤가구	246.2467	167.64955	3123.927***
		근로빈곤가구	60.2002	40.37580	
	총소득 (공적이전 소득 포함)	근로비빈곤가구	246.4510	167.63420	3065.925***
		근로빈곤가구	65.6649	38.90623	
	가구주 소득	근로비빈곤가구주	188.4222	152.72763	367.478***
		근로빈곤가구주	48.1972	39.78381	
	취업가구원 소득	근로비빈곤가구원	123.0595	126.67473	367.478***
		근로빈곤가구원	27.3355	37.75469	
유형별 소득	근로소득	근로비빈곤가구	153.9399	137.77725	2144.006***
		근로빈곤가구	38.6525	43.98046	
	사업소득	근로비빈곤가구	78.8790	153.39067	1285.699***
		근로빈곤가구	13.1269	27.75518	
	재산소득	근로비빈곤가구	7.8958	50.49871	404.137***
		근로빈곤가구	1.3452	6.97452	
	사적이전소득	근로비빈곤가구	3.4563	21.38488	−180.035***
		근로빈곤가구	5.8021	14.65650	
	공적이전소득	근로비빈곤가구	0.0865	1.48543	−503.24***
		근로빈곤가구	4.7410	11.97440	
	사회보험급여	근로비빈곤가구	2.0758	14.87419	117.559***
		근로빈곤가구	1.2736	6.64468	
유형별 자산	부동산	근로비빈곤가구	10380.2152	22731.09626	898.899***
		근로빈곤가구	2946.2859	5667.34403	
	동산	근로비빈곤가구	866.6824	4289.95499	436.055***
		근로빈곤가구	184.1217	1122.07160	
	금융자산	근로비빈곤가구	3044.1089	5070.54630	998.941***
		근로빈곤가구	975.4081	1738.26775	
	부채	근로비빈곤가구	1974.1980	5642.33273	232.224***
		근로빈곤가구	1292.2231	3076.43816	

주: *** p<.001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임대료, 이자소득 등 가구 총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의 경우 월 7.9만원,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월 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총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월 3.5만원인 것에 비해 근로빈곤가구가 월 5.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주위의 경제적 도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월 0.09만원인 것에 비해 근로빈곤가구가 약 4.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험을 수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소득규모의 차이를 보면, 근로비빈곤가구의 경우 평균 2만원,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평균 1.3만원으로, 두 집단 모두 그다지 많은 액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근로빈곤가구의 자산

우선 부동산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1억 380만원, 근로빈곤가구가 2946만원으로, 근로빈곤가구보다 근로비빈곤가구의 부동산 규모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산과 금융자산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각각 867만원, 3044만원, 근로빈곤가구가 각각 184만원, 975만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로빈곤가구보다 근로비빈곤가구의 자산 규모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1974만원, 근로빈곤가구가 1292만원으로 오히려 근로빈곤가구보다 근로비빈곤가구의 부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부채규모의 차이를 앞서 분석한 두 집단 간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차이와 비교해 볼 때, 소득이나 자산규모차이가 부채규모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가구가 근로비빈곤가구보다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큼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규모도 평균적으로 근로비빈곤가구가 약 1억 2317만원, 근로빈곤가구가 약 2813만원으로 근로빈곤가구의 순자산규모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근로빈곤가구는 위기상황에 가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순자산의 규모를 적게 가지고 있어서,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채는 저소득가구가 현재의 상황을 유지 및 발전함에 있어 큰 장애임과 동시에 빈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부채발생사유와 부채경로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빈곤가구의 탈빈곤을 위

하여 부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 분석(Logistic Regression)

로짓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분석을 위한 로짓분석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 표를 통해 변수들의 로짓계수, 표준오차, 유의미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카이제곱값 등을 정리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모형1(가구주의 개인적 특성 모형), 모형2(가구특성 모형), 모형3(소득특성 모형), 그리고 모형4(통합모형)가 제시되었다.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거의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여기에서는 회귀계수가 1에 가깝거나 그 이상 값의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모형1에서 가구주특성에 따른 빈곤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에 비해 유배우자인 경우와 해체상태(사별·이혼·별거)인 경우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주가 만성질환자이거나 장애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주의 주된 활동이 미취업자인 경우가 취업자인 경우보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2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빈곤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우선 가구유형이 부부+자녀가구인 경우에 비해 그 외 가구유형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인 경우가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자가구인 경우 일반(부부+자녀)가구에 비해 평균비교시점에서 빈곤할 확률이 약 10배 가량 높게 나타나, 빈곤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의 경우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 무상, 전세인 경우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월세인 경우는 자가인 경우에 비해 평균비교시점에서 빈곤할 확률이 약 2.4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

부채는 저소득가구가 현재의 상황을 유지 및 발전함에 있어 큰 장애임과 동시에 빈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근로빈곤가구의 탈빈곤을 위하여 부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표 4. 빈곤요인분석의 변수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빈곤여부	비빈곤=0, 빈곤=1
독립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가구주 연령(세)
		교육수준	교육년수(년)
		혼인상태(더미)	미혼=dummy 1(기준변수) 유배우=dummy2(유배우=1) 해체(사별 · 이혼 · 별거)=dummy 3(해체=1)
		장애여부	없음=0, 있음=1
		만성질환	없음=0, 있음=1
		주된활동(더미)	임금근로자=dummy 1(기준변수) 비임금로자=dummy 2(비임금근로자=1) 미취업자=dummy 3(미취업자=1)
	가구 특성	가구유형(더미)	부부+자녀가구=dummy 1(기준변수) 부부가구=dummy 2(부부=1) 모자가구=dummy 3(모자=1) 부자가구=dummy 4(부자=1) 단독가구=dummy 5(단독=1) 기타가구=dummy 6(기타=1)
		주거현황(더미)	자가=dummy 1(기준변수) 전세=dummy 2(전세=1) 월세=dummy 3(월세=1) 무상=dummy 4(무상=1)
		가구원수	가구원수(명)
		거주지역(더미)	대도시 동지역=dummy 1(기준변수) 중소도시 동지역=dummy 2(중소도시=1) 읍 · 면 · 동지역=dummy 3(읍 · 면 · 동=1)
	소득 특성	사회보험가입여부	없음=0, 있음=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사회보험급여	소득액(원)
		부채유무	없음=0, 있음=1

에 비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읍 · 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평균비교시점에서 빈곤할 확률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표 5.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빈곤=1)

		모형1(가구주특성)		모형2(가구특성)		모형3(소득특성)		모형4(통합모델)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가구주 특성	연령	−0.033(0.000)***	0.967					−0.013(0.000)***	0.987
	교육수준	−0.145(0.000)***	0.865					−0.130(0.000)***	0.878
	유배우(기준: 미혼)	0.265(0.004)***	1.304					−0.137(0.006)***	0.872
	사별 · 이혼 · 별거(기준: 미혼)	0.993(0.004)***	2.699					0.442(0.005)***	1.556
	장애여부	0.722(0.003)***	2.058					0.669(0.003)***	1.952
	만성질환여부	0.833(0.002)***	2.301					0.797(0.002)***	2.218
	비임금(기준: 임금)	−0.083(0.002)***	0.920					−0.165(0.002)***	0.848
	미취업(기준: 임금)	1.796(0.002)***	6.028					1.828(0.003)***	6.223
가구 특성	부부가구(기준: 부부+자녀)			0.712(0.003)***	2.038			0.580(0.004)***	1.786
	모자가구(기준: 부부+자녀)			2.227(0.004)***	9.268			1.620(0.007)***	5.053
	부자가구(기준: 부부+자녀)			1.981(0.007)***	7.246			1.185(0.009)***	3.272
	단독가구(기준: 부부+자녀)			0.692(0.004)***	1.997			0.088(0.007)***	1.092
	기타가구(기준: 부부+자녀)			1.003(0.003)***	2.727			−0.048(0.006)***	0.953
	전세(기준: 자가)			0.209(0.002)***	1.233			0.533(0.003)***	1.704
	월세(기준: 자가)			0.890(0.002)***	2.436			0.926(0.003)***	2.525
	무상(기준: 자가)			0.665(0.003)***	1.945			0.711(0.004)***	2.037
	중소도시(기준: 대도시)			−0.029(0.002)***	0.972			−0.100(0.002)***	0.904
	읍 · 면지역(기준: 대도시)			0.655(0.002)***	1.925			0.623(0.003)***	1.865
	가구원수			0.103(0.001)***	1.109			0.189(0.001)***	1.208
소득 특성	연금가입여부					−0.041(0.005)***	0.959		
	근로소득					−0.049(0.000)***	0.952		
	사업소득					−0.052(0.000)***	0.949		
	재산 소득					−0.058(0.000)***	0.943		
	사적이전소득					−0.049(0.000)***	0.952		
	공적이전소득					0.079(0.000)***	1.083		
	보험급여					−0.058(0.000)***	0.943		
	부채유무					0.675(0.003)***	1.964		
상수(constant)		−0.567(0.007)***		−3.046(0.005)***		3.794(0.005)***		−2.415(0.011)***	
−2Log likelihood		7883524.6		9110098.5		3530650.7		7523927.2	
Nagelkerke Rsquare		0.270		0.111		0.729		0.314	
Chi−square		1998861.57		782550.282		6361189.52		2358458.98	
사례수		7,595		7,595		7,595		7,595	

주: *** p 〈 .001

높게 나타났다.

모형3에서 소득특성에 따른 빈곤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소득이 높을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채가 없는 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가구주 개인적 변수와 가구 변수에 따른 빈곤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1과 모형2를 통합하여 구성한 모형이다[4]. 통합모형의 분석결과, 역시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이는 모형1과 모형2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고에서 우선 근로빈곤가구와 근로비빈곤가구 간에 가구주특성, 가구특성, 소득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 가구유형이 모자가구인 경우, 주거유형이 월세인 경우, 가구주가 만성질환자인 경우 순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첫째,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보다 미취업자나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빈곤가구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미취업자나 비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유형이 부부+자녀가구인 경우보다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인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모자가구인 경우 더욱 빈곤할 위험성이 높게 나

4) 소득관련변수들은 가구주특성변수나 가구특성변수와는 변수값의 단위 등이 달라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소득변수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관련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타났음을 볼 때, 모자가구를 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심리적인 지지망 형성, 아동양육지원 등의 다양하고 통합된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거유형 중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중요변수로 월세나 무상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자립방안의 하나로 주거 안정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정책의 확대, 주거급여의 개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정책의 확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건강상태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볼 때,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일정부분 상승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 가구유형이 모자가구인 경우, 주거유형이 월세인 경우, 가구주가 만성질환자인 경우 순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